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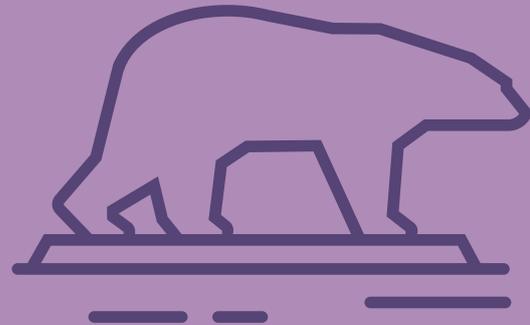
# 국제개발협력

# 이슈 ISSUE

ISSUE

BRIEF

# 브리프



## 기후 변화

VOL. 15 | 2025. 5

KOICA YP 노유리

전북국제협력진흥원(JBCIA)는 KOICA 영프로페셔널(YP)을 중심으로, 최근의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국제개발협력 이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들어가며

1. 기후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2. 국제개발협력에서 기후행동의 진화

3.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

4. 기후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화

마치며: 우리의 역할과 실천 방향

참고문헌

# 들어가며

## 기후위기의 시대, 왜 개발협력에서 기후 변화를 논의해야 하는가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적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전 지구적 위기로, 그 파급력은 지구상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빈곤, 식량안보 위협, 보건문제, 그리고 물 부족과 같은 기존의 난제들을 더욱 악화시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중이다.<sup>1)</sup> 실제로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가 2030년까지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빈곤 상태에 떨어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sup>2)</sup>

이러한 현실에서 개발협력은 더 이상 기후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간주하게 되었다. 과거의 개발협력이 경제 구축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날에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이 개발협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도시 조성, 기후 스마트 농업, 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현대의 개발협력은 전통적인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실천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기후행동(SDG 13), 빈곤퇴치(SDG 1), 식량안보(SDG 2) 등 다양한 목표와도 연관된다.<sup>3)</sup>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와 개발협력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1)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2) World Bank, 「Rapid climate-informed development」,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5/11/08/rapid-climate-informed-development-needed-to-keep-climate-change-from-pushing-more-than-100-million-people-into-poverty-by-2030> (2025. 06. 24. 검색)  
3)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 1. 기후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 기후 취약성과 불평등

상술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결코 모든 국가와 계층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지리적 위치, 경제적 자원의 부족, 제한된 기술력, 취약한 사회 인프라 등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위치한 소규모 도서국이나 사막 인접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거지 파괴, 식수 부족 등은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sup>4)</sup>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빈곤층,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며, 이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5)</sup>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단순히 환경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농업에 의존하는 가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손실로 빈곤에 빠지고, 이는 다시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킨다.<sup>6)</sup> 이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와 갈등 보건 위기 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각국의 특수한 취약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평등과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

4) Cissé, G., McLeman, R., Adams, H., Aldunce, P., Bowen, K., Campbell-Lendrum, D., ... Tirado, M. C. (2022). Health, wellbe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communities. In Pörtner, H.-O. et al. (Ed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p. 1041-11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325844.009>

5)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6) Barbier, E. B., & Hochard, J. P. (2018).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poor in disadvantaged regions.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12(1), 26-47.

7) UNDP. 「Climate change is a matter of justice - here's why」. <https://climatepromise.undp.org/news-and-stories/climate-change-matter-justice-heres-why>

# 농업, 보건, 물, 생계 기반의 위협

제차 강조하듯이 기후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보건, 물, 그리고 생계 기반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농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민 다수의 생계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후 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수 패턴, 가뭄, 홍수, 고온 현상 등은 농작물 생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식량 공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식량 가격 상승, 영양실조, 아동 성장 저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가 이미 수백만 명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sup>8)</sup>

보건 분야 역시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패턴 변화는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등 기후 민감성 감염병의 확산을 촉진하고, 이는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한 추가 사망자 수가 연간 2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또한, 폭염은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병률도 높인다.<sup>10)</sup>

물 자원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불규칙성과 가뭄, 수질 오염 등은 안전한 식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위생 및 건강 문제로 직결된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sup>11)</sup> 물 부족은 농업 생산성 저하, 위생 환경 악화,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며, 이는 다시 생계 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

8)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9)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limate-change-and-health> (2025. 06. 25. 검색)

10) WHO, 「Climate chang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https://www.who.int/news/item/02-11-2023-climate-change-and-noncommunicable-diseases-connections> (2025. 06. 25. 검색)

11) UNICEF. (2030). *The UNICEF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3-2030*.

## 2. 국제개발협력에서 기후 행동의 진화 파리 협정 이후의 글로벌 거버넌스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자원 부족과 위생 환경의 악화는 단순한 환경적 위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포괄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위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보다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기후 변화는 환경 이슈에서 비롯되어 개발과 인권, 보건, 식량 안보 등 다차원적인 개발 의제와 포용적으로 다뤄져야 할 글로벌 거버넌스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도 중요한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전환점이 지금부터 이야기 할 파리 협정이다.

2015년 파리 협정의 채택은 기후 변화 대응의 국제적 거버넌스에 있어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이전까지의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에 비해,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결정기여(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 및 강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편적 참여'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감축 목표와 적응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법적 구속력과 실행 가능성, 유연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sup>12)</sup>

특히 파리 협정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선진국은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탄소 발전, 기후 적응,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기후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sup>13)</sup> 또한, 파리 협정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조항은 이미 발생한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sup>14)</sup> 이처럼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을 더 이상 선택적 과제가 아닌, 모든 국가의 개발정책과 국제협력의 핵심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즉, 각국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해, 기후 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실질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한 것이다.

#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기후 중심 전략 변화

파리 협정 체결 이후, 주요 공여국과 다자개발은행(MDBs), 국제기구들은 개발협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기후 변화를 핵심 의제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2027년 개발협력 예산의 30% 이상을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sup>15)</sup>,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도 ODA 예산에서 기후 관련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sup>16)</sup> 해당 국가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기후 리스크 평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적응 역량 강화 등 기후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자기구 역시 기후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5년까지 전체 금융지원의 35% 이상을 기후행동에 할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sup>17)</sup> 모든 투자사업에 기후 리스크 분석과 저탄소 및 적응 요소를 의무화했다.<sup>18)</sup>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sup>19)</sup> 아시아개발은행도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sup>20)</sup> 해당 기관들은 '기후와 개발의 통합적 접근법'을 공식 전략으로 채택하여,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기후변수와 지속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빈곤, 식량,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개발의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행동이 개발협력의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는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 리스크 평가와 탄소 감축, 적응 역량 강화, 녹색 인프라 투자, 기후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방향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실행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를 공동의 글로벌 과제로 인식한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중심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해 왔다. 다음에서는 재생에너지, 기후적응 인프라, 기후 스마트 농업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접근을 살펴볼 것이다.

---

12) Davide M., Parrado R., Campagnolo L., (2017). *Fairness in NDCs: comparing mitigation efforts from an equity perspective*; Rogelj, J., Popp, A., Calvin, K. V., et al. (2018). Scenarios towards limiting global mean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C. *Nature Climate Change*, 8, 325-332. <https://doi.org/10.1038/s41558-018-0091-3>

13) OECD. (2024).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022*.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9150727-en>

14) UN. (2015). *Paris Agreement*.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 3. 개발협력 사례

### 한국의 사례 및 협력국 중심 접근 (1): 재생에너지 보급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UNDP와 KOICA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와 수단의 농촌 지역에 태양광 기반 관개시스템과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UNDP와 KOICA 간 협력의 예를 들자면, 미얀마의 Nyaung U와 Myingyan에서는 2024년 태양광 관개시스템 도입 이후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sup>22)</sup> 이외에도 수단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약속하며, 수단 북부 나일강 주의 6개 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23)</sup>

- 
- 15) European Commission, 「Climate mainstreaming」,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performance-and-reporting/horizontal-priorities/green-budgeting/climate-mainstreaming\\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performance-and-reporting/horizontal-priorities/green-budgeting/climate-mainstreaming_en) (2025. 06. 25. 검색)
  - 16) Pettinotti, L., et al. (2023). *A fair share of climate finance? The adaptation edition*. ODI Working Paper. London: ODI.
  - 17)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3/10/10/climate-finance-update> (2025. 06. 25. 검색)
  - 18) World Bank, 「Climate finance update」,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3/10/10/climate-finance-update>
  - 19) GCF. (2023). *Green Climate Fund Annual Report 2023*
  - 20) ADB. (2023).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2023*
  - 21) OECD/UNDP. (2025). *Investing in Climate for Growth and Development*
  - 22) UNDP, 「Rays of hope」, <https://www.undp.org/myanmar/stories/rays-hope> (2025. 06. 25. 검색)
  - 23) <https://www.undp.org/sudan/press-releases/undp-koica-partner-project-promote-solar-powered-irrigation-sustainable-agriculture-sudan> (2025. 06. 25. 검색)

# 한국의 사례 및 협력국 중심 접근 (2): 기후적응 인프라

기후 변화에 건널 수 있는 기후회복형 인프라는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우선 순위로 부상 중이며,<sup>24)</sup> 특히 홍수, 가뭄, 극심한 기온 변화 등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지역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OICA는 동남아시아(예: 베트남, 캄보디아)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예: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에서 홍수 방지 시스템, 관개수로 및 위생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해 왔다.<sup>25)</sup> 이러한 사업들은 기후 재해의 즉각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KOICA는 캄보디아에서 상수도 및 기초 식수 공급뿐만 아니라 농업용 수자원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량 안보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였다.<sup>26)</sup> 이외에도 KOICA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sup>27)</sup> 해당 지역의 총 1,100ha 크기 농경지에 중형 댐과 관개수로를 건설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현금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KOICA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인프라 유지관리, 재난 대비,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인프라 투자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장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는 것이다.

---

24) UNDP, 「UNDP-KOICA project in Sudan」, <https://www.undp.org/sudan/press-releases/undp-koica-partner-project-promote-solar-powered-irrigation-sustainable-agriculture-sudan> (2025. 06. 25. 검색)

25) KOICA. (2015), *The Commitment of KOICA to Water-related Disasters*

26) UN ESCAP. (2016). *Appendix B: A Case Study on Investment Trends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ter and Sanitation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27) KOICA,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en/3420](https://www.koica.go.kr/koica_en/3420) (2025. 06. 25. 검색)

# 한국의 사례 및 협력국 중심 접근 (3): 기후 스마트 농업

한국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다. KOICA는 케냐에서 소농을 대상으로 빗물 저장 및 활용 기술, 농림복합경영(Agroforestry), 수직 정원(Vertical garden) 등 다양한 혁신적 농업기술을 도입했다.<sup>28)</sup> 빗물 저장 기술은 불규칙한 강수로 인한 가뭄 피해를 줄이고, 농림복합경영은 나무와 작물을 함께 재배함으로써 토양 침식 방지, 생물다양성 증진, 농가 소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직정원은 한정된 공간에서도 식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 및 농촌의 식량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KOICA는 동아프리카에 기후 변화에 따른 스마트 솔루션의 도입을 지원했다. 특히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등의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예측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기후 위험 보험, 금융 포용 등 회복력 중심의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현지 농민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민들의 기후변화 적응력과 식량 안보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

---

28) OECD. (2024). *Empowering Marginalised Communities: Korea's Climate-Smart Agriculture Programme in Kenya*.

29) WFP, 「KOICA and WFP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https://www.wfp.org/news/koica-and-wfp-strengthen-climate-resilience-and-food-security-vulnerable-families-east-africa> (2025. 06. 26. 검색)

# 기후 정의와

##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화

###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의 관점

상술한 회복력 중심의 기후 대응 전략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존의 생계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협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술적 해결을 뛰어넘어, 사회적, 경제적 구조 전반의 재편을 수반하는 과정임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변화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원칙이다.<sup>30)</sup> 탄소 중립 전환은 에너지를 바꾸는 것에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에너지 접근성의 변화, 생계수단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실직, 소득 감소, 에너지 빈곤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sup>31)</sup> 이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32)</sup>

그러므로 개발협력은 기술 이전 및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sup>33)</sup> 이외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노동계, 여성, 청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sup>34)</sup> 이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전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초용성을 담보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UNDP와 ILO 등의 국제기구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해 노동권 보호, 사회적 대화, 포용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35)</sup> 한국 역시 개발협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을 반영하여, 파트너 국가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지원과 포용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6)</sup>

30) UNDP. (2022). *How Just Transition Can Help Deliver the Paris Agreement*

#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의 통합

정의로운 전환이 전환 과정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전략이라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환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기적인 기후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별개의 목표로 보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sup>37)</sup>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곳이자 최종적인 지향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균형 있게 통합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이 환경 파괴와 함께 이뤄졌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탈탄소 사업 육성 등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도입되며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sup>38)</sup> 예를 들어,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저탄소 기술의 보급, 기후 스마트 농업의 확산,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sup>39)</sup> 실제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함께 지역 주민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 젠더 격차, 지역간 개발 격차 해소 등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정책과 교육, 고용 지원을 통해 기후행동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up>41)</sup> 예를 들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목색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sup>42)</sup> 이처럼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성의 통합은 기후행동을 단순한 환경 문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한다.

31) OECD. (2023). *Labour and Social Policies for the Green Transition*

32) OECD. (2025). *Ensuring a just transition to net-zero emissions*

33) OECD. (2023). *Unpacking public and private efforts on just transition*

34) UNFCCC. (2018).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35) UNDP. (2022). *How Just Transition Can Help Deliver the Paris Agreement*; ILO. (2023). *Just Transition and Green Jobs - Lessons,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under PAGE*

36) OECD. (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 마치며: 우리의 역할과 실천 방향

기후 변화에 있어서 전환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으며, 우리 각자의 선택과 실천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기후위기와 개발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환경정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정책의 수립 과정에 기후 요소를 통합하고, 파트너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참여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개발도상국의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여성 및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실천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경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재교육, 고용 지원, 포용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협력 정책에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개발협력은 이러한 책임을 나누고, 글로벌 연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기후와 개발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37) OECD-UNDP. (2025). *Investing in Climate for Growth and Development*

38) OECD. (2019). *Towards Green Growth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39) World Bank, 「Energy overview」, <https://www.worldbank.org/en/topic/energy/overview> (2025. 06. 26. 검색)

40) World Bank, 「Energy overview」, <https://www.worldbank.org/en/topic/energy/overview> (2025. 06. 26. 검색) (2025. 06. 26. 검색)

41) LinkedIn, 「Green Skills and Jobs for a Just and Sustainable Future」, <https://www.linkedin.com/pulse/green-skills-jobs-just-sustainable-future-h-m-asad-uz-zaman-ml2mc> (2025. 06. 26. 검색)

42) UNDP. (2024). *UNDP Annual Report 2021*

43) UNDP. (2021). *UNDP Climate Promise Progress Report*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KOICA. (2015), *The Commitment of KOICA to Water-related Disasters*

## 해외 문헌

ADB. (2023).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2023*.

Barbier, E. B., & Hochard, J. P. (2018).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poor in disadvantaged regions.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12(1), 26 - 47.

Cissé, G., McLeman, R., Adams, H., Aldunce, P., Bowen, K., Campbell-Lendrum, D., ... Tirado, M. C. (2022). Health, wellbe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communities. In Pörtner, H.-O. et al. (Ed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p. 1041 - 11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325844.009>

Davide M., Parrado R., Campagnolo L., (2017). *Fairness in NDCs: comparing mitigation efforts from an equity perspective*

GCF. (2023). Green Climate Fund Annual Report 2023.

ILO. (2023). Just Transition and Green Jobs - Lessons,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under PAGE.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KOICA. (2015). The Commitment of KOICA to Water-related Disasters.

OECD. (2019). Towards Green Growth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OECD. (2023). Labour and Social Policies for the Green Transition.
- OECD. (2023). Unpacking Public and Private Efforts on Just Transition.
- OECD. (2024).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 - 2022.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9150727-en>
- OECD. (2024). Empowering Marginalised Communities: Korea's Climate Smart Agriculture Programme in Kenya.
- OECD. (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 OECD. (2025). Ensuring a Just Transition to Net-zero Emissions.
- OECD/UNDP. (2025). Investing in Climate for Growth and Development.
- Pettinotti, L., et al. (2023). A fair share of climate finance? The adaptation edition. ODI Working Paper. London: ODI.
- Rogelj, J., Popp, A., Calvin, K. V., et al. (2018). Scenarios towards limiting global mean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C. *Nature Climate Change*, 8, 325 - 332. <https://doi.org/10.1038/s41558-018-0091-3>
- UN. (2015). Paris Agreement.
- UNDP. (2021). UNDP Climate Promise Progress Report.
-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 UNDP. (2022). How Just Transition Can Help Deliver the Paris Agreement.
- UNDP. (2024). UNDP Annual Report 2021.
- UN ESCAP. (2016). Appendix B: A Case Study on Investment Trends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ter and Sanitation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UNFCCC. (2018).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UNICEF. (2030). The UNICEF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3 - 2030.

## 국내 인터넷 자료

KOICA, 「KOICA 홈페이지」, [https://koica.go.kr/koica\\_en/3434](https://koica.go.kr/koica_en/3434)

KOICA,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en/3420](https://www.koica.go.kr/koica_en/3420)

## 해외 인터넷 자료

European Commission, 「Climate mainstreaming」,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performance-and-reporting/horizontal-priorities/green-budgeting/climate-mainstreaming\\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performance-and-reporting/horizontal-priorities/green-budgeting/climate-mainstreaming_en)

LinkedIn, 「Green Skills and Jobs for a Just and Sustainable Future」, <https://www.linkedin.com/pulse/green-skills-jobs-just-sustainable-future-h-m-asad-uz-zaman-ml2mc>

ODI, 「A Fair Share of Climate Finance? The Adaptation Edition」, [www.odi.org/en/publications/a-fair-share-of-climate-financethe-adaptation-edition](http://www.odi.org/en/publications/a-fair-share-of-climate-financethe-adaptation-edition)

UNDP, 「Climate change is a matter of justice - here's why」, <https://climatepromise.undp.org/news-and-stories/climate-change-matter-justice-heres-why>

UNDP, 「Rays of hope」, <https://www.undp.org/myanmar/stories/rays-hope>

- UNDP, 「UNDP-KOICA project in Sudan」, <https://www.undp.org/sudan/press-releases/undp-koica-partner-project-promote-solar-powered-irrigation-sustainable-agriculture-sudan>
- WHO, 「Climate change and health」,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limate-change-and-health>
- WHO, 「Climate chang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https://www.who.int/news/item/02-11-2023-climate-change-and-noncommunicable-diseases-connections>
- WFP, 「KOICA and WFP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https://www.wfp.org/news/koica-and-wfp-strengthen-climate-resilience-and-food-security-vulnerable-families-east-africa>
- World Bank, 「Climate finance update」,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3/10/10/climate-finance-update>
- World Bank, 「Rapid climate-informed development」,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5/11/08/rapid-climate-informed-development-needed-to-keep-climate-change-from-pushing-more-than-100-million-people-into-poverty-by-2030>
- World Bank, 「Energy overview」, <https://www.worldbank.org/en/topic/energy/overview>